

'불교원어' 새음역 표기법 시안 제시

기존 문제점 해소...검증 거쳐 '쉽고 간결함' 특징

정승석교수



정승석교수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로 대 표되는 불교원어(原語)의 음역 (音譯)표기법 시안(試案)이 동 국대 정승석교수(인도철학과) 에 의해 새롭게 제안됐다.

정교수는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의 학술지인 (가 산학보) 제44집에 실린 '불교원 어 음역표기 조사 연구: 불교 원어의 음역표기법 시안'이란 논문을 통해 이미 발표되거나 적용된 적이 있는 기존의 표기 법들을 비교하거나 실제 음역 에 적용하면서 드러나는 문제 점들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새 로운 표기법 시안을 제시했 다.(도표 참조)

정교수는 논문에서 "한국불

교의 발전을 지향하는 장기적 인 안목에서 볼 때, 중국을 거 친 2차적인 음역어는 인도 원 어로부터의 1차적 음역어로 대체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내 언론과 출판 전반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음역 표기의 통일안'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정교수는 "음역된 한자가 국 어로는 둘 이상의 음가를 가질 때, 국어의 음역에는 불합리나 혼란이 종종 발생한다"며, "이 러한 경우에 음역어의 일관성

<字母 표기안의 대조>

원어	한글대장경	시험	원어	한글대장경	시험	원어	한글대장경	시험
ka	가	가	ca	차	차	ya	야	야
ai	아이	아이	cha	차	차	ra	라	라
i	이	이	ja	자	자	la	라	라
ii	이이	이이	ra	라	라	va	바	바
u	우	우	na	나	나	sa	사	사
ur	우리	우리	ta	타	타	sa	사	사
ri	리	리	da	다	다	ha	하	하
ii	이이	이이	na	나	나	o	오	오
au	아우	아우	pa	파	파	h	하	하
au	아우	아우	ba	바	바	s	수	수
ka	카	카	ma	마	마	s	수	수
ga	가	가	ma	마	마	s	수	수
ga	가	가	ma	마	마	s	수	수
ga	가	가	ma	마	마	s	수	수

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음가 선 다"고 말했다.

택의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 "표기법에서 중요한 것은 김재경 기자

음역표기의 실제에서 은갖 사 례에 규정대로 적용할 수 있 는 통일성과 일관성"이라고 말 하는 정교수는 자신이 제안 한 표기법 시안대로 음역을 실행해 볼으로써 객관성과 타 당성에 대한 일차 검증을 마 쳤다.

정교수는 기존 표기안의 문 제점으로 지적된 △실용성을 갖지 못한 '기호 사용과 음절 의 추가' △국어의 음성적 특 성과 습관을 무시한 경우(원소 리)의 표기 △다양한 사례를 통한 검증의 결여 등을 극복하 고, 많은 사례의 실증을 통해 전문성을 띄면서도 쉽고 간결 한 표기법을 마련했다는 평가 를 받고 있다.

정교수는 "많은 사람들의 실 증을 거친 다음에야 이 표기법 이 정식 지침으로 공인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불교원어의 음역표기법이 정착될 수 있도 록 이 시안에 대한 다양한 문 제제기와 검증이 있따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 발견 후 전법해야 하는지

문 교직자입니다. 늘 부처님법에 따라 생 활하고 경행해, 가면서 학생들에게도 마 을공부의 길을 전파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혹시 잘못 가르치거나 아 닌가 걱정돼 되어서 나 자신을 발견할 때까지는 자 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유유열·광주 광산구 장덕동)

답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이 넉넉해진 후부터 부모님께 효도하시렵니까? 그렇게 해서는 효도 못합니다. 평소애 늘상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맘 풀려 일하고 벌여 가면서 넉넉하든 모자라든 진심으로 봉양하는 게 참효도 이겠지요.

학생들에게 부처님법을 전파하는 것도 그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꼭 내가 전성을 해야만 부처님법을 일러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 아무 염려마시고 성심성의껏 하던대로 하세요.

조그마한 것, 큰 것이 따로 없지만 조그마한 것이 자라나 커지는 것이지 갑자기 커져서 튀 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잘하고 계십니다.

습니다. 대신 죽어줄 사람도 없구요. 답답한 것도 괴로운 것도 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 는 것이니 누가 대신 괴로움과 답답함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지리에 되놓 으라는 것입니다. 되놓는 게 안된다는 말을 하 는데 그것도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인 스스로 되놓는 노력을 해보세 요. 가령 마음을 카세트테이프에 비유한다면 그것이 돌아가면서 입력된대로 나올 때 어떻게 해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되돌려야 하겠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마음자리에서 나온 그 괴 로움이라는 것 그것을 되돌려 놓아야 테이프가 지워지든지 다시 녹음이 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일러드리는 방법은 '주 인공, 주인공이 있다면 괴롭지 않게 할 수도 있 겠잖아' 하며 놓는 작업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 스님들마다 한결같이 강조하시는 말씀 이 가르침을 머리로 알고자 하지 말고 마 음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알아야 한다고 하십 니다. 누구나 생각하는 것은 머리에 있다고 보는데 마음이란 어디 있습니까? 생각하는 것 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양진동·부천시 소사구 목길동)

지 상 상 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 히 신학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시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 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양총림 대흥사님께 물 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재제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지난 14일 타계한 염영하 박사



타으로 종의 역사, 한국종의 출현, 구성요소, 재료, 주조 기술 등 해설과 더불어 한국 종의 소리를 음향학적 측면 에서 분석하고, 3백55구의 종 을 각 시대별로 나누어 실 축·탁본을 토대로 한 조사 내용을 엮은 명저이다.

"종은 복잡하고 바쁜 생활 속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모 든 스트레스와 번뇌를 떨쳐 주는 마음의 고향이며 원천"

한국 범종연구에 한평생 '열정'

해인사종등 8구제작, 저서도 2백여권

한국 범종제작의 최고권위 자인 서울대 명예교수 廉永 翬박사가 지난 14일 오후 3 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7세.

합남 이원근 차호면 태생 인 염박사는 45년 일본 동북 제국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84년까지 서울대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범종연구회 장, 대한기계학회장을 지 냈다.

염박사는 보신각새종, 석 굴암대종, 해인사종, 직지사 종, 천축사종 등 8구의 범종 (梵鐘)과 독립기념관을 직 접 제작했으며 신라 고려 조선시대 종의 특성을 비교 연 구한 <한국의 종>, <한국 종 연구> 등을 비롯한 2백여권의 저서와 논문을 남겼다.

특히 <한국의 종>은 필자 가 '종'을 찾고 박물관을 방 문하면서 수집한 자료를 바

이라고 말해 온 故人是 "신 비한 주조기술로 만들어진 한국종은 '은은한 소리의 여 운과 아름다운 조각미'의 측면에서 세계 최우수의 금속 공예품"이라고 격찬을 아끼 지 않았었다.

염박사와 함께 20여년간 범종을 제작해 온 성종사 원 공직사장은 "그처럼 열정적 으로 종을 연구하던 분이 가 서서 매우 슬프다"며 "고인 은 상업주의에 몰든 졸속적 인 종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무엇보다 슬퍼했으며 우리 나 라의 종 제작법을 세계적으 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늘 강조했었다"고 말했다.

故人是 71년 과학기술학술 상을, 74년 국민훈장 동백 상을 수상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경신씨(73)와 아들 창철씨(46)가 있다. <재>

'지자시대'... 심포지움 내용

국립공원내의 자연보존을 위 해서는 불교계가 먼저 사찰의 환경 훼손 실태와 원인을 규명 하고 이를 시정할 후, 환경오 염을 예방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8일 한국불교환경교육 원(원장 범룡)이 주최한 '지방 자치시대의 국립공원관리와 불교의 환경운동' 심포지움에 서 이장오씨(실악산 모노레일 및 위락시설 반대 연대회의 실행위원)는 토론에 나서 "사찰 진입도로로 인한 산림훼손과 사찰주변의 상가·숙박시설 신축 등 사찰로 인한 환경 훼손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 라며, "불교계가 앞장서서 이 러한 폐해를 시정하고 자연보 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 했다.

이씨는 "실악산 산홍사 소유 의 4만여평의 부지에 모노레일 과 차량진입로, 온천개발, 상 가·숙박시설 등이 들어서는 계획이 진행중"이라며, "이는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은 지난 8일 불교의 환경운동에 관한 심포지움을 열었다.

국립공원 자연보호 불교계가 앞장 서야

인 이유형씨는 공원 매표소에 서 자주 벌어지는 입장료 시비 와 관련, "매표소에서 동시에 받는 입장료와 공원내 각 사찰 의 문화재관리료는 따로 구분 해 받아 시비를 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산림청의 유병일 임업정보실 장은 "불자들의 무분별한 동물 방생에 앞서 산림보존을 위한 '나무 방생'이 선행돼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교지도연구가

정의·평화위해 각종교 협동 절실

한신대 김경재교수 밝혀

"종교의 궁극적 목적은 정교 (正敎)에 있지 않고 정행(正行)에 있다. 곧 이론과 교리의 식명(釋明)에 있지 않고, 구체 적으로 생명을 살리고 건강한 본래적 인간모습을 회복하게 함에 있다."

한신대 김경재교수는 지난 1 일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주 최 시민공개강좌에서 '종교다원사 회에서 공동체 윤리'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교수는 "신사회 공동선의 목적인 자유 정의 평화 생명가 치의 보존운동에 한국의 다양한 종교단체들은 각 종교의 특성과 고유성을 지켜 가면서 대승적 협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금권선거 막아야'

장울병교수 강연 한국종교협의회(회장 이재석) 는 지난 17일 종교조찬연수회

에 장울병교수(전성관대 총 장)를 초청, '의식개혁과 선거 문화'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 했다. 장교수는 "법을 어기고 돈만이 쓰는 자들을 내선시키는 운동을 전개하자"며 "유권자들 도 결과보다 어떤 수단과 방법 을 택했느냐를 더 중시하는 사 고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각 종교계 인 사들이 참석, 이번 선거는 종교 인들 먼저 공동하게 치루자고 의견을 모았다.

◇기사남쳐 '한국사찰의 주 련' 습니다.

가슴에 불이 켜진것 같았어요

문 얼마전 차를 타고 가면서 눈을 감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가슴에서 불이 켜진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러길래 눈을 뜨니 이 번엔 거울이 보이고 그 거울에 불보살님의 희상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무엇인지요? (최기문·서울 송파구 방이동)

답 공부하는 중에 무엇이 보이는 것은 모두 자기를 가르치기 위해 마음자리에서 화해 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언가 보였다고 해서 좋 아하고, 남다르다 싶어 으스스대고 무슨 대단한 경험을 했는양 자만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보 이는 것, 들리는 것이 도가 아닙니다. 그저 수억 겁 거쳐 오면서 지은 업상의 환상일 뿐이니까 방화좌해야 합니다. 주인공 자리에 되놓아야 합 니다. 다만 나를 가르치기 위한 방편으로 보였 으니 그저 감사한 일이나 하면서 놓으세요. 과일도 무르익어야 맛이 나는 법이지요. 설악은 과일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마음공부 하고 싶는데 자꾸 산란

문 마음공부를 열심히 잘 하고 싶는데 자 꾸 산란해지고 여러가지로 괴롭기만 합 니다. 괴롭지 않고 공부하는 길은 없는지요? (박효순·부산 사하구 대대동)

답 이 세상에 대신 밖 머물러 사람없고 대 신 아파할 사람없고 대신 잠자울 사람 없 습니다.

마음은 쉴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 질 수도 없고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머리다, 가슴이다, 들어와 있다 나가 있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바로 묘한 도리요 광대 무 변한 법이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전 우주를 싸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겠으며 사방 삼세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다고 하겠습니 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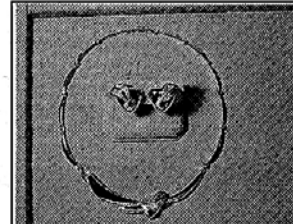
마음은 있다 없다고 말할 수 있는게 아닙니 다. 더우기 어디에 있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고 부처 남게서 한 찰나에 나투어 묘법을 설한다 하는 것이고 일체유심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있다 없다는 생각에 얽매지 마시 고 일상 중에 웃고 울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작용 가운데서 찾아보세요. 마음은 제가 없 지만 천차만별로 찾아무변하게 작용하는 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공했다 하고 색과 공이 둘 이 아니라 합니다.

내게 이런 질문을 한 것은 누구이며 그 생 각을 낸 그것은 필가요. 옛날 어느 스님이 법 을 물어오면 오직 손가락 하나를 세워 보였도 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웃고 우는 작용, 수 없이 천차만별로 나투는 그 작용에서 내 주장자 를 확인해보세요. 주장자란 다른 게 아니고 내 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게 다 마음의 작용인 줄을 아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뛰나고 하기 이전에 일체는 마음자리에서 나 오고 마음자리로 든다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우아함이 깊이를 더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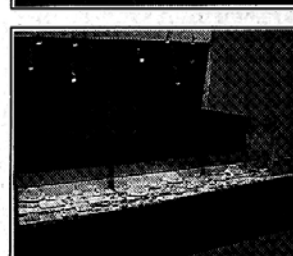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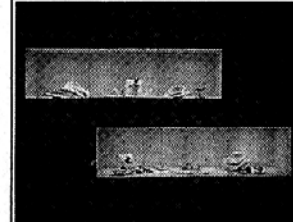
귀금속 靑雨



섬세하고 정교한 제품, 서정적인 주제와 독특한 감성표현, 각 개인의 개성을 소중히 하는 디자인.....

靑雨 귀금속은 유행을 넘어선 남다른 아름다움의 깊이를 전하고자 노력합니다.

녹음이 짙어져가는 계절 클래식한 우아함과 세련된 현대 감각이 함께하는 곳 靑雨에서 당신만의 개성을 만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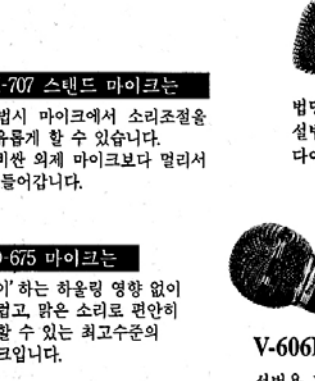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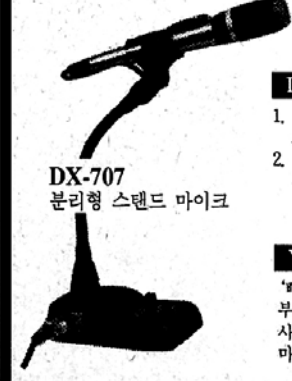


- '靑雨' 劉藝也 씨 전시경력
- 1971-1972 국전 서양화 부문 입선 20,21회
 - 1976 파리 니켈제산 공모전 입상
 - 1977 파리 Cite International des arts 주최 전람회 출품
 - 1978 불란서 전국 사진 공모전 출품
 - 1979 파리 프리마그 로지에 공모전 입상
 - 1980 파리 화당 전람회 출품
 - 1977 불란서 예술원 공인 미술작가
 - 1980.6 제1회 개인전(신세계 백화점 화랑)
 - 1982 한국 공예가회 출품
 - 1983 한국 공예가회 출품
 - 1984 한국 공예가회 출품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65-1, 2 한양타운 107호 / 우편번호 135-120 / TEL 3442-4434~5

모든 사찰에서 마이크 성능을 시험해 볼 기회를 드립니다.

유코전자의 고성능 마이크는 각종 법회 봉행, 설법전용, 마이크로 단 한 개라도 심혈을 기울여 제작하는 예술작품입니다!



DX-707 스탠드 마이크는
1. 설법시 마이크에서 소리조절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2. 값비싼 외제 마이크로보다 멀리서 잘 들립니다.

YD-675 마이크는
'빠-이' 하는 하울링 영향 없이 부드럽고, 맑은 소리로 편안히 사용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마이크입니다.

V-606LC
설법용 고급 마이크
공급가: 65,000원

3년 保證
YD-675
소포공급가: 90,000원
유선 핀마이크

T-7
경전장착, 설법 각종법회용
공급가: 45,000원

유코전자에서 생산되는 각종 마이크는 '음향연구가 金文華'가 직접 설계한 작품으로, 특히 독자적으로 개발한 100% 금속막 대로 하나씩 기공해 만들어지는 '음성소자'는, 부드러운음에서도 맑고 힘찬 소리를 연출하는 최고급 수준의 마이크로서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독일 및 유럽 8개국 수출업체임)

마이크만을 생산, 수출하는 기업 - 유코전자
본사 : 158-0911 서울시 양천구 신원1동 226-7
TEL: (02) 697-9976, 693-7537 / FAX: (02) 695-9676